일본 면방적 산업에 미래는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 패전으로 끝이 난 일본의 면방적 산업은 그 당시 중국에 220만추, 만주에 48만추, 한반도에 20만추를 모두 상실하고, 일본 본토에는 최전성시(最全盛時)에 1,200만추를 웃돌던 면방적 설비가 전재(戰災)나 군부에의 공출(供出) 등으로 200만추로까지 줄었었다.

전후의 일본은 점령군의 규제가 서서히 풀리면서 면방공업은 모든 산업 중에서도 가장 눈부신 발전으로 생산시설 규모가 급증하여, 1970년대에는 1,000만추를 초과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3년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세계 5대 강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의 G5 회의에서, 다년간 고정환율(固定換率)로 1US＄=￥360을 유지하며 무역흑자를 올리고 있던 일본의 엔화가치가 변동환율로 절상되기 시작하고, 두 번에 걸친 오일·쇼크로 고난이 가중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개발도상국이나 후발국(後發國)들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수입제한이 없는 일본시장에 몰려들어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서 일본의 경제가 지대한 타격을 받게 되었으나 여전히 일본경제는 계속 무역흑자를 보이자 이태리와 캐나다를 추가한 G7 회의에서 1985년의 “플라자 합의(Plaza Accord)”에 따라 엔화 절상이 한층 더 가속화되어 1US＄ ￥240이던 것이 ￥100 120수준까지 절상되자 일본의 면제품 수입이 한층 더 격증하면서 면방적시설이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는 대전이 끝났을 당시의 규모인 200만추를 약간 웃도는 규모로 축소되었고,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시설은 80% 수준이 되었다.

일본의 면방산업이 면사의 생산원가 중 일본에서 손꼽히는 면방회사의 인건비 비중이 순면사 40수 단사가 30%, 20수 단사는 40% 수준이고 전체평균

은 후발국 보다도 훨씬 높아 일본의 섬유산업은 일찍이 사양산업이라는 낙인(烙印)마저 찍히더니, 마침내 패전당시의 200만추 규모까지 축소하게 된 것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숙명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은 일본내 생산시설도 많이 축소하였지만, 자본참가나 시설이설(移設) 등으로 해외공장에서 증설이나 신설도 추진하여 개별기업의 방적사업은 축소만 해 온 것은 아니었으나, 일본내에 있는 면방산업은 일본 산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뚝 떨어져버려 그 존재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그렇다고 면방산업이 일본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 선도적(先導的)인 대면방적 기업들이 "상품개발력이나 생산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일정규모의 생산공장을 일본내에 남겨 둘 필요가 있다"고 해서 뿐만이 아니다.

"텍스타일 사업은 기대할 만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방적부문만을 보면 그 동안의 구조조정으로 적자였던 것이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개선은 설비를 축소함으로써 가동률이 향상되어서 뿐만이 아니라, 그 동안 동시에 17품종까지 생산하던 어떤 공장이 생산라인을 개선하여 22품종까지 동시에 생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어떤 대면방회사에서는 "중국산 면사나 인도산 면사, 인도네시아산 면사 일지라도 수입면사는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경비를 수입 가격에 합산하면 일본내의 제직공장이나 편성공장에서 구입하는 가격은 일본산 면사가격과 큰 차는 없다"고 지적하고, 실의 수요자인 제직업계나 편성업계, 가공업계의 쇠퇴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일본의 면방적 업계가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기술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상품 개발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면 국제시장에서 승부를 겨루어 볼만한 힘은 아직 남아 있는 것은 아닐까?

일본 시장에 나돌고 있는 면제품의 95%가 수입품인 현 시점에서 일본내의 면방적 사업에 희망을 걸어보려는 것은 무모하다고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일본의 면방적 산업이 극한 상황까지 줄고 보면 이제는 희소가치도 생길 수 있어 하기에 따라서는 독특한 가치를 만들어 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